

건강행태·의료의 질				번호: IV - F - 3	
제 목	국문	음주에 대한 인식수준이 알코올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relationship of alcohol consumption and perception about alcohol related behavior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동현 ¹ , 김한중 ² , 이지전 ³ , 이상욱 ⁴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건강보험연구센터 ³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⁴			
	영문	Dong Hyun Lee ¹ , Han Joong Kim ² , Jee Jeon Yi ³ , Sang Wook Lee ⁴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²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Kwandong University ⁴			
분 야	보건관리 건강행태	발 표 자	이동현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 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0월				
<p>1. 연구배경</p> <p>최근 한국사회에서 음주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섭취량은 14.40ℓ로 15.15ℓ를 섭취하는 슬로베니아에 이어 세계 2위로 보고되었다. 음주로 인한 질병, 교통사고 등의 각종사고, 조기사망, 생산성 손실 등에 관련된 비용을 산출한 결과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1995년에 약 9조 5670원으로 추정, 이에 주류소비지출을 포함하면 약 13조 6230억원으로 추정되었고, 2001년의 경우는 약 22조 6541억원의 규모에 달한다. 높은 음주율의 바탕에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음주에 대한 인식수준과 알코올 섭취량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보건교육 제공 시 금주교육의 내용개발과 음주에 대한 high risk group 선정 등 보건교육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p> <p>2. 연구방법:</p> <p>이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 도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60세 이하의 인구 중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훈련된 조사원이 면접하였다. 표본추출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표본을 추출, 자료를 수집하였다.</p> <p>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음주에 대한 인식수준이 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지역, 지역크기, 나이, 성별, 직업, 교육수준, 월수입, 결혼유무, 종교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음주에 대한 인식수준에서는 5가지 영역의 질문을 통해 음주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였다.</p> <p>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알코올 섭취량이다. 대상자의 알코올소비는 음주자의 알코올 소비에 대해선 크게 3가지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알코올 소비를 측정하였다. 술의 종류에 따른 한잔의 기준은 소주 50ml, 맥주 200ml, 막걸리 200ml, 청주 80ml, 포도주 100ml, 약주 80ml, 고량주 30ml, 양주 30ml로 하였다. 한번에 마시는 양과 술 종류 별 알콜 농도, 주당 음주횟수와 알콜의 비중(0.79)을 곱하여 일주일 동안의 알코올 섭취량을 계산하였다.</p>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으며, 혼란 변수를 통제하고 음주에 대한 인식수준과 알코올 소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결과

전체 대상자중 남성은 69.9%, 여성은 30.1%, 연령별로는 10대 14.0%, 20대 24.5%, 30대 25.8%, 40대 22.7%, 50대 13.1%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은 중졸이하가 18.1%, 고졸 43.7%, 대재 이상 38.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26.2%, 학생 19.7%, 자영업 16.5%, 가정주부 순으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26.5%, 서울, 부산/경남 순이며 대도시 49.9%, 중소도시 36.0%, 읍/면지역 14.1%로 조사되었다. 음주횟수는 1주일에 1-2일 27.8%, 한달에 1-2일 22.1%, 1주일에 3-4일 10.8%,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가 7.4%로 조사되었다. 많이 마시는 술의 종류는 맥주 50.6%로 가장 많았으며 막걸리, 소주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연구결과는 진행 중.

4. 고찰

진행 중